The Tempest

- □□

정보

Thomas Adès: The Tempest

개요
곡명: The Tempest (오페라)
작곡가: Thomas Adès (1971–)
대본: Meredith Oakes, William Shakespeare의 희곡 The Tempest를 바탕으로 한 현대 영어 대본
작곡 시기: 2003년
위촉: Royal Opera House
세계 초연: 2004년 2월 10일, Royal Opera House, Covent Garden, London, Thomas Adès 지휘 장르: 3막 영어 오페라
소요 시간: 약 122분 (악보 기준)
구성 규모: 제 1막, 제 2막, 제 3막
주요 배역: Prospero(높은 바리톤), Ariel(높은 소프라노), Caliban(테너), Miranda(메조소프라노), Ferdinand(테너), King of Naples(테너), Antonio(테너), Sebastian(바리톤), Gonzalo(베이스바리톤), Stefano(베이스바리톤), Trinculo(카운터테너), 궁정 인물들 (SATB)

IMSLP: The Tempest

Wikipedia: The Tempest (opera)

Thomas Adès의 The Tempest는 Meredith Oakes가 Shakespeare의 희곡을 현대 영어 운문으로 압축한 3 막 오페라다. 제 1막에서 Prospero가 일으킨 폭풍과 섬의 인물 관계를 제시하고, 제 2막에서 난파한 궁정
일행과 Caliban의 반란, Miranda와 Ferdinand의 사랑을 병치하며, 제 3막에서 Prospero가 복수와 마법을
거두고 화해에 이르는 순서로 전곡을 구성한다. 무대의 중심에는 전 밀라노 공작 Prospero, 그에게 봉사하는
정령 Ariel, 섬의 원주민 Caliban, Prospero의 딸 Miranda가 놓인다.

대본과 위촉

Oakes의 대본은 Shakespeare의 문장을 그대로 작곡에 붙인 판본이 아니다. 원작의 사건과 인물 관계를 남기면서 대사를 짧은 행과 운을 가진 현대 영어로 다시 배열하고, 오페라의 세 막에 맞게 장면을 압축한다. Met의 제작 자료는 이 대본이 원작의 구조에 가깝지만 직역이나 완전한 재현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2004년 초연을 다룬 Andrew Clements의 평론도 이를 현대적인 운문 패러프레이즈로 규정하면서 , 원작을 아는 관객에게 익숙한 표현이 새 문장 사이에서 되살아난다고 보았다.

Royal Opera House의 위촉으로 Adès는 2003년에 악보를 완성했다. Tom Cairns가 연출하고 Moritz Junge 가 무대와 의상을, Wolfgang Göbbel이 조명을 맡은 초연 제작은 Adès가 직접 지휘했다. Royal Opera House는 2004년 초연 뒤 2007년에 같은 제작을 다시 올렸고, 그 리바이벌의 실황이 2009년 전곡 음반의
바탕이 되었다.

출판 정보와 자료

Faber Music은 총보와 성악 자료를 별도로 출판했다. Faber의 총보 안내는 464쪽 분량의 정식 악보와 일반판 ISBN 057153838X, 한정판 ISBN 057153872X를 제시하며, 성악보 ISBN은 0571522084, 리브레토 ISBN은 0571523374로 구분한다. 총보 안내에는 작품이 2004년 2월 10일 런던에서 초연되었다는 기록과, 폭풍을
여는 관현악 서주 및 마지막 화해 5중창이 포함되어 있다.

작품 전체와 별개로 Faber는 오페라에서 파생한 세 편의 연주회용 작품도 목록화한다 . Overture to The Tempest (2004)는 관현악곡으로 약 3분, Scenes from The Tempest (2004)는 독창자와 관현악을 위한 약 25분의 발췌곡, Court Studies from The Tempest (2005)는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약 8 분의 실내악곡이다 . 이 세 곡의 제목과 편성은 3막 전곡과 혼동하지 않도록 분리해 기록해야 한다.

소요 시간

Faber Music은 악보의 연주 시간을 122분으로 제시한다. 실제 극장 공연은 인터벌과 무대 전환을 더한다. 예를 들어 Met의 2012년 공연 일정은 13시부터 15시 45분까지로 공지되어 인터미션을 포함한 약 2시간 45 분의 관람 시간을 보여 준다. 2009년 EMI 전곡 CD는 2007년 실황을 2장에 담아 총 1시간 57분으로 표기했다
. 따라서 122분은 음악 자체의 기준값이고 , 공연장 체류 시간과 음반 재생 시간은 제작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편성

성악: Prospero(높은 바리톤), Ariel(높은 소프라노), Caliban(테너), Miranda(메조소프라노), Ferdinand(테너), King of Naples(테너), Antonio(테너), Sebastian(바리톤), Gonzalo(
베이스바리톤), Stefano(베이스바리톤), Trinculo(카운터테너), 궁정 인물들 (SATB)
목관: 플루트 3(제 2·제 3은 피콜로 겸용), 오보에 3(제 3은 잉글리시 호른 겸용), 클라리넷 3(제 3은 A
클라리넷 ·베이스클라리넷 겸용), 바순 3(제 3은 콘트라바순 겸용)
금관: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2와 베이스 트롬본 또는 튜바
타악 ·건반: 팀파니, 타악기 2–3명, 하프 (제 3막에만), 업라이트 피아노
현악: 현악 5부

Ariel의 높은 소프라노, Prospero의 높은 바리톤, Caliban의 테너는 인물의 신분보다 음역과 발성의 성격을 먼저 구별한다. 궁정 인물들의 SATB 편성은 난파한 일행을 집단으로 묶으며, 제 3막에만 등장하는 하프는 섬의 마법이 결말로 이동하는 시점에 색채를 더한다. Faber와 IRCAM의 목록은 트롬본과 튜바의 겸용 표기에서
세부 표기가 다르지만, 베이스 금관을 포함한 큰 관현악이라는 점은 같다. 업라이트 피아노와 2–3명의 타악기 주자는 표준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다른 음색을 만드는 지정 파트다.

막별 극 구조

제 1막: 폭풍과 섬의 질서

전곡은 폭풍의 관현악 서주와 Prospero의 명령으로 시작한다. Prospero는 과거 밀라노 공작이었으나 동생 Antonio의 배신으로 권력을 잃고 Miranda와 함께 섬에 정착했다. 그는 Naples의 King과 Antonio, Sebastian, Gonzalo가 탄 배를 폭풍으로 섬 가까이 끌어들인다 . 첫 장면의 폭풍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Prospero가 오랫동안 준비한 귀환의 장치로 제시된다.

Ariel은 Prospero의 명령을 수행한 뒤 자유를 요구한다. 높은 음역의 노래와 빠르게 변하는 관현악은 Ariel을 인간 궁정과 다른 존재로 만들며, 녹음 트랙의 “Five fathoms deep”는 난파와 마법의 경계를 잇는 대표적인
장면 제목이다. Prospero는 딸 Miranda에게 자신이 왜 섬에 오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Caliban에게는 Sycorax의 뒤를 이은 섬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명령과 반발을 주고받는다 .

난파한 일행 가운데 Ferdinand가 Miranda를 만나면서 제 1막의 마지막에는 새로운 결합이 생긴다. Prospero 는 두 사람의 관계를 즉시 허락하지 않지만, 두 젊은 인물의 선율은 서로 닮은 음가와 진행을 보이며 첫 만남을 음악적으로 표시한다. 궁정의 권력 다툼, Ariel의 복무, Caliban의 저항, 연인의 만남이 한 막 안에 놓이면서
이후의 화해가 해결해야 할 관계망이 완성된다.

제 2막: 궁정 일행과 Caliban의 노래

제 2막에서 Naples의 King과 궁정 일행은 섬 곳곳으로 흩어진다. Ariel은 Prospero의 마법을 실행해 인물들의 기억과 방향 감각을 흔들고, Antonio와 Sebastian은 다시 권력을 차지할 가능성을 엿본다. 궁정의 말과 음악은 섬의 불확실한 소리와 충돌하며, 왕권의 질서가 섬에서는 임시적인 약속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Caliban은 Stefano와 Trinculo를 만나 Prospero에게서 섬을 되찾을 계획을 세운다. 두 희극적 인물의 장면은 다른 인물들의 긴장된 음악과 대비되지만 ,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삽입 희극이 아니라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뒤집으려는 Caliban의 욕망을 외부로 드러낸다. Caliban이 섬의 소리와 기억을 노래하는 장면은 2막의 중심 독창으로, The Guardian과 The Classical Source의 음반 평론에서도 전곡의 가장 강한 장면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었다 .

Miranda와 Ferdinand의 사랑은 궁정의 음모와 Caliban의 반란 사이에서 별도의 시간감을 만든다. 두 사람의 대화와 듀엣은 제 1막에서 제시된 음악적 유사성을 확장하며, Prospero가 섬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균열을 낸다. 막의 끝에서는 인물들이 잃어버린 과거와 섬에 오기 전의 삶을 되짚고, 녹음판의 “What was before”라는 제목처럼 기억의 문제가 제 3막의 용서로 넘어간다.

제 3막: 용서, 화해와 자유

제 3막은 Prospero가 각 인물을 한곳으로 이끄는 과정으로 시작한다. Ariel은 생존자들을 인도하고, Antonio와 Sebastian의 살해 계획은 폭로된다. Prospero가 만든 환영과 연회는 궁정 일행이 자신들의 행동을 보게 하는 심판의 장면이지만 , 그는 마지막 순간에 복수를 계속할지 결정해야 한다.

Ariel이 축복을 노래한 뒤 이어지는 파사칼리아는 프로그램 자료에서 Prospero의 내면이 가라앉고 결말의
질서가 형성되는 지점으로 설명된다. 음악은 폭풍의 불규칙한 충돌에서 벗어나 반복되는 저음과 층층이

쌓이는 선율을 통해 화해의 시간을 준비한다. 이어 Prospero, King of Naples, Gonzalo, Ferdinand, Miranda가 함께 부르는 제 3막 화해 5중창이 과거의 배신과 현재의 가족 관계를 하나의 앙상블로 묶는다.

Prospero는 마법을 버리고 지팡이를 꺾는다. Ariel은 자유를 얻어 섬을 떠나지만, 마지막에는 말보다 음향적 흔적으로 물러난다. Caliban은 섬에 남아 스스로 왕관을 쓰고, 인간 궁정의 귀환과 섬의 새로운 주권이 완전히 합쳐지지 않은 채 병존한다. 종결부의 “Quietness”, “How good they are”, “Who was here”라는 녹음 트랙 제목은 폭풍 뒤의 정적, 화해의 감정, 사라진 존재의 기억을 차례로 가리킨다.

작곡가의 설명과 음악적 조직

Adès는 Met 인터뷰에서 이 작품을 대사의 배경에 음악을 붙인 오페라라기보다 음악의 내부 논리가 극의
진행을 이끄는 “symphonic opera”로 설명했다. 그는 폭풍이 Prospero의 내면에 남은 고통을 외부 사건으로 투사한다고 말하며, 서주의 소리와 Prospero의 귀환 계획을 하나의 심리적 운동으로 연결한다. 이 설명은 폭풍 장면을 줄거리의 장식이 아니라 인물의 기억과 권력 행위가 만든 음향적 사건으로 읽게 한다.

Ariel의 성부는 소프라노 음역의 가장 높은 곳에 지속적으로 놓인다. Adès는 높은 음역이 Ariel의 비인간적 존재감을 결정한다고 설명했고, 독립 평론에서도 Cyndia Sieden과 Audrey Luna가 이 역할의 초고역을
작품의 즉각적인 표지로 만든다고 평가했다. Caliban을 테너로 쓴 결정은 전통적인 괴물의 낮은 성부와 다르다. Adès는 Caliban을 물고기나 뱀장어처럼 미끄러지는 존재이자 Prospero를 비추는 거울로 설명했으며
, 2막의 온전한 A장조 아리아가 그 이질적인 서정을 드러낸다.

인물별 음악 세계는 서로 다른 음역뿐 아니라 리듬과 질감으로도 구분된다. Clements가 지적했듯 Miranda와 Ferdinand는 같은 음가 진행을 공유해 서로의 친연성을 알리고, Prospero의 음악은 초기의 날카로운 금관과 선언적 문장에서 출발해 결말의 앙상블로 변한다. 궁정의 집단 장면은 말과 팡파르가 얽힌 외부 질서를, 섬의 장면은 목관과 현의 층이 풀렸다가 다시 모이는 내부 공간을 만든다. 2009년 음반 평론은 이러한 대비 속에서 Ariel의 초고역, Caliban의 아리아, 제 3막 파사칼리아와 화해 5중창을 특히 빛나는 부분으로 들었다.

전곡과 파생 작품, 공연 형태

3막 전곡은 성악 독창, 궁정 인물들의 집단 장면, 합창적 질감, 장면 사이의 관현악을 모두 포함하는 무대 작품이다. Overture to The Tempest는 폭풍의 에너지를 약 3분의 관현악곡으로 압축하고, Scenes from The Tempest는 독창자와 관현악을 이용해 전곡의 여러 장면을 25분으로 재배열한다 . Court Studies from The Tempest는 네 대의 실내악 악기로 궁정 장면의 재료를 옮긴 별도 작품이다. 이 발췌곡들은 전곡을
대신하는 축약판이 아니라, 오페라의 음향 재료를 다른 연주 조건으로 옮긴 독립 작곡으로 취급해야 한다.

초연 제작은 Tom Cairns의 연출과 Wolfgang Göbbel의 조명을 중심으로 섬의 마법과 궁정의 기계를
시각화했다 . 2012년 Met는 Robert Lepage와 Ex Machina의 새 제작을 올렸고, Adès가 지휘한 첫 공연은 2012년 10월 23일에 열렸다. Met의 2012년 플레이빌은 Simon Keenlyside, Isabel Leonard, Audrey Luna, Alan Oke, Alek Shrader 등 주요 배역과 인터미션을 포함한 공연 시간대를 기록한다. 같은 제작의 영상은 Deutsche Grammophon DVD로 발매되어 무대 장치와 성악을 함께 접하는 경로를 열었다.

녹음과 수용

2009 6 14 EMI CD Thomas Adès Royal Opera Chorus Orchestra of the Royal Opera House 2007 2007 3 23 26 1 57 . Simon Keenlyside, Cyndia Sieden, Ian Bostridge, Kate Royal, Toby Spence, Philip Langridge , Donald Kaasch, Stephen Richardson, David Cordier, Jonathan Summers, Graeme Danby .

Andrew Clements Stefano Trinculo . Ariel , Prospero , Miranda Ferdinand , Caliban 2 , 3 5 , . David Gutman The Classical Source Keenlyside Sieden Caliban . Mark Swed Audrey Luna Ariel, Alan Oke Caliban, Simon Keenlyside Prospero Shakespeare .

2004 Clements Oakes . 2012 Mark Swed Audrey Luna Ariel, Alan Oke Caliban, Simon Keenlyside Prospero Shakespeare . 2007 , 2012 Met .

- Faber Music, *The Tempest*: , 122 , · · · .
- Faber Music, full score and vocal materials: 464 ISBN, .
- Royal Opera House Collections, *The Tempest*: 3 2004 .
- Royal Opera House Collections, 2004 production: Tom Cairns 2004·2007 .
- Thomas Adès, *The Tempest*: .
- Thomas Adès, recording page: 2009 · · .
- IRCAM, *The Tempest*: .
- Metropolitan Opera, “Storm of the Century”: Adès · · .
- Metropolitan Opera, “Full Fathom Five”: 2012 Met .
- Metropolitan Opera, 2012 playbill: 2012 · · .
- The Classical Source, David Gutman review: 2007 .
- The Guardian, Andrew Clements, 2009 CD review: EMI .
- The Guardian, Andrew Clements, 2004 premiere review: .
- Los Angeles Times, Mark Swed, 2012 Met review: Met HD .